

바캉스가 끝나고 가을이 되자 프랑스 출판계는 사뭇 들뜬 분위기다. 각 문학상의 후보작들이 모두 발표돼 이제 최종 심사를 남겨두고 있으며, 가을학기에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잇따라 교재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8월 29일 프랑스 서점에서는 새롭게 번역된 두툼한 신판 《성서》가 서점 진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가 9월 중순까지 내린 집계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번역의 《성서》가 출간된 직후 2주 연속 비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 문인들 주도로 번역한 '문학적 《성서》'

6년의 제작기간, 24억이라는 제작비, 27명의 고대어 전문가 및 성서학자 그리고 20명의 현역 작가들이 번역에 참가했다는 수치상의 기록도 인상적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기존의 불어 《성서》들과는 달리 소설가, 시인, 희곡작가 등의 현역 문학인들이 번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호기심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이들의 참여는 단순히 성서학자들이 주축이 돼 번역해놓은 딱딱한 문장을 매만지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오히려 의미상 큰 벗어남이 없도록 성서학자나 고대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문학인들이 자유롭게 번역에 임했다고 한다. 이 새로운 번역의 《성서》가 보여주는 문체의 파격을 두고 어떤 이는 루브르 박물관에 유리 피라미드를 세운 사건에 비유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는 2천년 동안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서》를 번역할 때 문체의 번역에 이의를 달 지적 소유권자가 없다는 것이 그 《성서》를 출간한 출판사로는 다행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출판 사건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성서》의 출간은 프랑스 가톨릭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듯해 매우 흥미롭다. 프랑스는 분명 가톨릭 국가긴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외형상 그 면모를 상실해가고 있다. 성당은 문을 닫고, 스탕달의 《적과 흑》에서 보듯 한때 입신 출세의 방편이었던 사제가 되고자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

## 고정관념 깬 프랑스 출판계의 의식혁명

《성서》 번역본 새로 펴낸 바이야르 출판사

장석훈 | 출판기획자 · 번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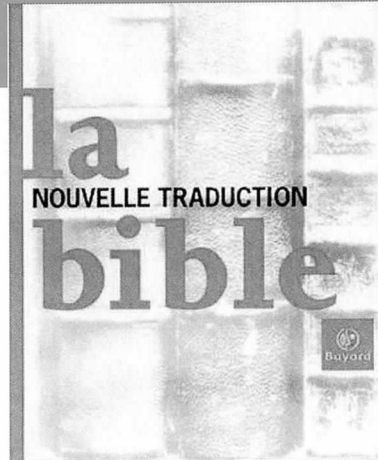
문인들이 번역에 참여해 원전의 시적인 문체와 풍요로움을 갖추게 된 바이야르판 《성서》 표지.

는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어 가는 실정이다.

### 원전의 풍요로움 재현해

하지만 한편에서는 '테제 공동체'와 '슈메너프 공동체'와 같은 새로운 감각의 공동체가 다수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마디로 신앙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해야겠다. 그런데 신앙 생활의 중심에 있는 《성서》는 여전히 고답적인 형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성서》들은 현학적이며 교과서적인 표현에 시적 여운은 도무지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서》 각 편들의 문체가 너무도 획일적이어서 각각의 텍스트가 갖는 풍요로움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현대적 감성에 맞는 새로운 《성서》가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 하지만, 고양이 목에 누가 먼저 방울을 달 것인가를 두고 서로 눈치를 보는 입장이었다. 그런 가운데 작가인 프레데릭 보와이제가 문학적인 《성서》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바이야르 출판사가 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바이야르 출판사가 이 기획을 수용하고 추진한 데엔 나름의 배경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바이야르 출판사는 프랑스의 유명한 가톨릭 신문인 《크로와》 등의 종교 출판물과



일반 출판물을 펴내는 거대한 가톨릭계 출판 그룹이다. 그러나 정작 제대로 된 《성서》 번역본은 하나도 갖추지 못해 바이야르는 불어권 《성서》의 정본이 되다시피 한 《에루살렘 성서》

와 《토브 성서》를 출간한 또 다른 가톨릭계 출판사인 세르프와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바이야르는 연간 약 25만권에 달하는 불어 《성서》 시장을 간과할 수 없었다. 게다가 프랑스 주교회의에서 2003년에 영어권의 《킹 제임스 성경》과 같이 의식용과 개인용을 아우를 수 있는 불어 《성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하니 바이야르 측으로서는 어떻게든 새로운 《성서》를 출간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어쨌든 '섹시한 《성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새로운 《성서》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과연 이 《성서》가 불어를 사용하는 신앙인들에게 보편이라는 가톨릭 정신을 더욱 살갑게 느끼고 수용하게 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